

시론

항상 분명한 뉴노멀, 예수!



은희곤 목사 (기독교 평화포럼 대표)

지난 해까지만도 백신 2번만 맞으면 되겠지 하며 어느 정도 끝이 보이나 했는데 다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나타나 '부스터 샷'을 맞으며 그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돌파감염이 절정을 이루는 가운데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신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이 갈수록 가중되어 '도대체 언제까지'라는 자조 섞인 한숨이 나옵니다. 이러한 외적 환경이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제한하고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울감인 '코로나블루'를 넘어서 우울증 단계인 '코로나블랙'을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신데믹'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고 이제는 코로나가 없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할 따름입니다.

이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 적응해 나갈 것인가?입니다. 힘들더라도 이런 변화를 직면하고 극복하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현재나 미래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가치와 기준 즉 '뉴노멀'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쟁이들에게는 어느 시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분명한 '뉴노멀'이 이미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입니다.

"미니멀리스트(Minimali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패셔너블 브랜드 자라의 야만시오 오르테가 회장은 여전히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항상 같이 밥을 먹고 단 한 번도 개인용 집무실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50주 기부선언을 했던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는 퇴근 후에는 가족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의외로 이들의 삶은 매우 단순하고 평범합니다. 이들은 좋은 스포츠카나 명품 옷과 팬트 하우스 등등을 마음만 먹으면 아주 간단하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을 따름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은 예수 따라 이리저리 몰려만 다니는 "무리, 팬(NOT A FAN)"이 아닙니다. 예수를 이 시대에 나의 삶의 자리(Here & Now)에서 재현(Re-presentation)하는 예수의 "제자"(The Beloved Disciple)된 삶을 아낌없이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며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해 관심 갖고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 가를 고민하며 사는 '예수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라고 뭐 크게 달라질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어지고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로 인해 각자가 더욱더 힘든 '코로나 신데믹'을 겪을 것이라 예측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코로나 신데믹'이 블랙홀이 되어 '코로나블루, 코로나블랙'으로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바뀌면 됩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분명한 '뉴노멀'이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히12:2)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예수 미니멀리스트'로 바뀌 나가며 살아가는데 가일층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코로나 신데믹'이라는 상황 안에서 이를 능히 이기고 나갈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나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는 주님이 명하시야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명하실까요? 바로 '예수 미니멀리스트'입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현실로 출발하지만 더욱더 예수가 나의 삶 안에 역사를 명하시는 예수 미니멀리스트로 새해를 열어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며, Happy New Year 인사를 전합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pastor.eun@gmail.com

팬데믹 3년, '새로운 현실 본격화' 시작된다!

이코노미스트, 2022년 꼭 알아야 할 글로벌트렌드 예측과 분석 제시

2020-2021년 전무후무한 팬데믹을 겪는 동안 전 세계 패러다임 예측을 재검토한 최고의 권위자 '이코노미스트'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계절 감염병으로 자리 잡게 될 2022년을 맞아 또 한 번 세계시장에 대한 심도 깊은 예측과 전망을 내놓았다. 이코노미스트지의 필진들 외에도 세계 유수 언론매체의 전문가, 정치

인, 학자, CEO 등 유명 인사들이 참여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의견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국제 정치, 경제, 금융, 비즈니스, 문화 이슈는 물론 다가오는 2022년에 주목해야 할 10가지 주제와 트렌드를 심층 분석한다(The World Ahead 2022: Ten trends to watch in the coming year).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더 월드 어헤드 2022(The World Ahead 2022)'에서 2021은 세계가 대유행과 대세를 역전시킨 해로서 2022년은 위기에 의해 재편된 지역(노동의 새로운 세계, 여행의 미래)과 더 깊은 추세가 자신들 스스로 재확인하면서(중국의 부상, 기후변화의 가속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필요성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세계'는 내년에 봐야 할 10가지 트렌드를 담았다. 특히 10가지 주제에 가상화폐를 포함해 주목을 받고 있다. 가상화폐 부분은 "크립토는 성장한다"

것이다. 안정성, 성장 및 혁신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이 경쟁은 무역에서부터 기술규제, 백신접종, 우주정거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성공할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깃발 아래 자유세계를 결집시키려 할 때 그의 역기능이 있는 분단국가는 그 장점을 제대로 선전하지 못하고

또 다른 하나가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 우려



은 공급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많이 난다. 며칠, 어느 날? 그리고 그것이 공평할 것인가?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은 사무실에 복귀하는 것이 될 열심이기 때문에 승진하기 위해 넘겨질 위험이 있다. 세금규정과 원격근로자에 대한 감시를 놓고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테크기업에 대한 반발강화

미국과 유럽의 규제당국은 수년 동안 거대 기술기업들을 통제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그들의 성장이나 이익에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제 중국은 자국 기술기업들을 무자비한 탄압으로 채찍질하며 앞장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국제 정치, 경제, 금융, 비즈니스, 문화 이슈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켜봐야 할 10가지 주제와 트렌드는 ▲민주주의 vs 독재 ▲코로나는 풍토병이 될 것 ▲인플레이션 우려 ▲노동의 미래 ▲테크기업에 대한 반발 ▲암호화폐 성장 ▲기후위기 ▲여행문제 ▲우주개발경쟁 ▲스포츠와 정쟁 등을 다뤘다.

민주주의 vs 독재

미국의 중간선거와 중국 공산당 총회는 라이벌 정치 체제를 생생하게 대비시킬

있다.

코로나는 풍토병 된다

새로운 항바이러스제, 개선된 항체치료제 그리고 더 많은 백신이 오고 있다. 선진국의 백신 접종자들에게 그 바이러스는 더 이상 생명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개발도상국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내포할 것이다. 예방접종이 강화되지 않는 한, 코비드는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부자들은 괴롭히지 않는 많은 풍토병들 중

공급망 붕괴와 에너지 수요급증으로 가격이 올랐다. 중앙은행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다. 영국은 특히 브렉시트 이후의 노동력 부족과 값비싼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에 처해 있다.

노동의 미래

미래는 '하이브리드(hybrid)'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면서 더 많은 날을 보낼 것이라는 폭넓

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들이 게이이나 쇼핑과 같은 경박함이 아닌 지리적 이점을 제공하는 '딥테크'에 집중하길 바란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의 혁신을 촉진시킬 것인가? 아니면 산업의 역동성을 억누를 것인가?

<9면으로 계속>

[알림] 본지 정기휴간에 따라 2022년 1월 8일자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지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광투시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지의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 치아이식(임플란트), 구강외과, 틀니, 보철치과, 미용성형치과,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886-4400(대표) | E-mail: nyk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 11:25-2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Website. http://www.lafgc.com

LAFGC 나성순복음교회 LA FULL GOSPEL CHURCH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2021년이 가고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의 그림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소망을 주는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누구든지 새해를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2022년 365일의 새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고 새날을 보낼 때 누구든지 그날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가까운 친지들이나 이웃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할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새해에 갖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새해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좋은 날이 될 것인가를 제공해주시며 새 생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날을 원하는 삶의 자세를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시편 34:12-14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34:12에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하면서 그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생명을 사랑하고” 하여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장수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백세인생이라고들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 때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좋은 말로 9988234 하여 “99세가 되도록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프다 죽자”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9988231이라고 합니다. “99세가 되도록 팔팔하게 살다가 이삼일 아프다 다시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애란 가수는 25년 무명으로 지내다 “70세에 저승사자가 부르러 오거든 아직 젊어 못 간다고 전해라”는 노래를 불러 인기를 끄는 것은 모두 장수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날이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의 날들인 복된 의미의 좋은 날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들의 삶속에 번영과 명성과 장수와 재해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날들은 얼마나 좋은 날들입니까?

또 하나는 말세에 예비한 구원의 날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가질 영원한 생명의 날을 주님으로부터 상속받아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의 삶이던 후자의 삶이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들은 반드시 누려야 할 좋은 날들입니다.

이러한 삶들은 우리에게서 복된 삶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해에 누구나 지내고 싶은 좋은 날을 원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 입을 조심하고 화평을 구하라 하였습니다(10절).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입을 조심하라는

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은 주님으로부터 지상에서의 최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 예수께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하였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때 예수께서는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단으로 떨어지는 무서운 장면입니다.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11절).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조심하면 된다고 하며 말을 안 하고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극적으로는 입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입을 조심하여 하나님의 명예와 세상에 해를 입히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유익한 삶을 살도록 적극적인 삶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

하였고, 육중생활도 신실함으로 하였고, 죄수들과 왕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해석하는 선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애매히 고생한 13년의 세월보다는 훨씬 더 좋은 80년의 축복의 날을 애굽의 총리로서 부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야모스 5:15에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였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도록 우리 모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줄 알아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에 주님께선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거든 기도하므로 해결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므로 15년의 생명을 연장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비록 나이 먹는 육신이라고 생각할 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말미암아 건강이 넘치는 생명을 부여 받아 하나님의 뜻을 수 없이 사랑의 덧입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아와 엘리사는 기도하므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2022년도를 살아 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엘리아나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수남여인의 집에 기름의 풍성함이 넘쳐 나듯이 여러분의 생활에도 풍성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독이 든 오이(현실의 코로나)를 먹을지라도 기도하므로 말미암아 해독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위기가 올 때 기도하므로 영적 능력을 힘입어 어려운 삶의 위기를 모면하여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나는 모든 것이 축복된 생활이라서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드십니까? 그러면 더욱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에 빠져 교만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2년도 백지수표는 장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사정을 아를 때마다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백지수표를 받은 우리는 Pay To Order를 잘 기입하여 정확히 해결함을 입어서 언제든지 좋은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2년도 맞이하면서 누구든지 좋은 날 보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을 조심하시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 능력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떠나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가면서 기도하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기도의 백지수표를 잘 기입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날들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날을 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anielosh@hotmail.com



신/년/월/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8-12절



오세훈 목사
(KAPC 전 총회장)

것입니다. 성경은 혀에 대해서 막강한 힘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8:21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말의 결과에 책임을 말하고 있는데 혀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고 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13-28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들은 대로 고백합니다. “더러는 세레 요한, 더러는 엘리아,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질문하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였습니다.

이 때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복이 있다고 칭찬하시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입술의 말이란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24에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하였습니다. 말의 실수는 타인을 죽일 수도 있으며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어가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2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2022년도를 지낼 때에 말을 조심하여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우리 이웃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모든 말에 정직하고 신실해야 하며 일구어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입을 조심하여 좋지 않은 말을 보내는 것보다 복된 좋은 날을 많이

는 것이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므로 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야 합니다. 악을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담은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또 동생을 죽인 죄를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었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창4:7)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이와 같이 죄를 지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일지언전 그 죄를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보디발에게도 충성

평을 도모하여 주님의 새 계명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3. 기도해야 합니다(12절).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 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 주신 큰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지 수표인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24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므로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기도하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이 이름을 부여 받았으며 기도하므로 형의 노여움을 풀

2022 KAPC 목사장로기도회

기도는 목사 먼저, 장로 먼저...



강사 소개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고든콘월신학대학원 객원교수
전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집회 본문과 제목
월요일 저녁
제 목: 주여, 깨어나게 하소서
본 문: 창세기 35:1-5절
설교 후 찬양: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화요일 저녁
제 목: 주여, 잊드리게 하소서
본 문: 사무엘상 7:3-11절
설교 후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화요일 오전 강의
제 목: 코로나 이후의 목회와 설교

주 제 : 기도는 목사 먼저, 장로 먼저...
일 자 : 2022년 2월 14일(월) 오후 5시 - 2월 16일(수)
장 소 : 류응렬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대 상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 부부 & 장로 부부
장 소 : 라스베가스 칼보리장로교회(조응철 목사 시무)
702-257-9191(교회) 702-296-9193(휴대폰)
6554 W. Desert Inn Road., Las Vegas, NV 89146
회 비 : 없음(총회 지원금과 교육부 임원 및 부원 찬조금, 각 노회 보조금으로 행사함)
* 호텔과 차량은 각 노회별로 준비해 주십시오.
등 록 : <https://forms.gle/ayE6wDa3PrusxjUGA>
원만한 운영을 위해 등 록을 1월 말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 의 : 교육부 부장 조응철 목사 (702)296-9193
교육부 총무 한일철 목사 (336)430-8749

* 각 노회 보조금 \$1000.00, 지 교회 찬조금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노회 보조금은 해당 노회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 100% 지원됩니다.
보조금 및 찬조금 보내실 곳 : Pay to order: KAPCE
Mailing address: Joe Han, 2411 Alderbrook Dr. High Point, NC 27265

- 호텔 안내 : 교회에서 가까운 호텔 : Orleans, Gold Coast, Rio 등이 있지만 Las Vegas Blvd(Strip이라고도 부름) 선상에 있는 모든 호텔이 교회와 15분 내외로 있어 별로 거리에 차이가 없습니다.
- 호텔 예약하실 때 호텔이 아닌 Hotels.com이나 Expedia 등을 통해서 예약하실 경우 호텔에서 따로 부과하는 Resort Fee가 포함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양쪽을 확인해 보신 후 예약 하시길 추천합니다.
- 호텔 예약 시 주차비를 따로 부과하는지 알아보시고 예약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주차비를 받는 호텔도 있고 받지 않는 호텔도 있는데 주차비가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앞에 교회에서 가까운 3 호텔은 주차비를 따로 부과 하지 않습니다.
- 목사장로 기도회에 참석하시고 인근 하루 코스, 1박 2일, 2박 3일 관광을 계획하시는 개인이나 노회는 교육부 부장 조응철 목사(702)296-9193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볼의 계곡, Tecopa 온천, Red Rock Canyon, Lake Mead, 그 외 여러 국립공원 등) 호텔 뷔페 정보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호텔마다 각기 다른 특색의 뷔페를 운영하고 있어 이 공문에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만 아침 \$12.95-\$40, 점심 \$16.95-\$50, 저녁 \$24.95-\$50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유시간을 이용해 교회 내에서 탁구, 농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

총 회 장 : 오세훈 목사 **교육부 부장** : 조응철 목사
서 기 : 장성철 목사 **교육부 서기** : 전대구 목사

새해에는 빛을 받으시다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 (뉴욕주찬양교회)

새해에는 빛을 받으시다. 빛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예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에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빛을 따라 밝고 맑고 환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입니다.

어디든지 빛이 들어가면 어둠과 걱정 근심과 우울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빛은 한 해의 길을 안내해주는 빛이십니다.

빛은 길이 없는 곳에는 길을 열어주시며 있어 캄캄하고 답답한 가슴에는 여름철의 냉수처럼

시원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들의 삶에 가이드 역할을 해주실 것입니다. 고로 빛으로 채우고 빛을 가슴에 간직하시고 빛으로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빛을 받으므로 개인과 가정과 집안과 교회와 교계와 동포사회와 모든 단체들과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빛이므로 빛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여러분! 동포 여러분들이여! 새해에는 빛을 받으셔서 좋은 삶 복된 삶 누리시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대와 소망의 지평 열고 영혼과 삶에 부흥을



뉴저지교협회장 고한승 목사 (뉴저지연합교회)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2년은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활동이 위축되고 생활이 단조로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2년이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오미크론으로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해를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올 해는 2022년입니다. 2자가 세 번이나 반복된 연도입니다. 저는 2자에서 "둘"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두 번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두 번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두 번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두 번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해 봅니다. revival(부흥), Renewal(갱신, 재개), resurrection(부활) 등...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움직이는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올 해는 재개와 부흥, 그리고 부활의 때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과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여정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부흥의 연속입니다. 2년 동안의 팬데믹 속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기대와 소망의 지평을 열고 영혼과 삶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출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을 뉴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전과 달랐던 세상을 향해 새롭게 출발할 때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미크론이 지나가고 교회도 좀 더 적극적인 목회 계획을 세우며, 성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임하셔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필라델피아교협회장 이병은 목사 (내백성장로교회)

델타 변이로 시작해서 오미크론 변이로 마감하는 유례없는 2021년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이 세월에 미주 지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시는 한인 분들께 성탄 및 신년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환한 인사조차 드리기 조심스러운 것은 변이를 거듭하며 생존하면서 끊임 없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팬데믹에 송구영신을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이 아무리 강하고 끈질기다 하더라도 내일을 향한 희망과 기대를 접고 새해를 맞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의 절망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망을 말하고, 서로 간에 축복을 빌고, 내일을 위하여 기대를 거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의 지극히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아울러 더 나은 밝은 미래를 향한 소망은 절망이 가장 깊고, 어둠이 절정에 달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이 팬데믹의 시기는 분명 절망과 어둠, 고통, 억압과 단절의 시기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다 하더라도 새날을 향한 희망과 복을 빌 말해야 하고, 될 수만 있다면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각자 품은 소망의 정의와 본질, 내

용, 근거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 그 자체는 이 팬데믹의 시기에 가장 적절한 가치요 필요한 덕목입니다. 팬데믹에 희망을 말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세상의 역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롬15:13)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가장 큰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심으로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때가 차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절망이 서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신년에 새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롬 12:12)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헤쳐나가기 바랍니다.

힘든 한 해를 살아 내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가정마다 넘쳐나시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희망찬 2022년 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RCA 한인총회장 송호민 목사 (뉴저지 한성개혁장로교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걱정 말아요 그대' 라는 노래의 한 소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우리 삶의 궤적들을 반추해볼 때, 때론 후회하며 눈물짓기도 했지만 반면에 감격하며 감사했던 유의미한 날도 참 많았습니다. 변화무쌍, 예측불허의 상황에 직면했던 지난 한 해,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 삶을 불드신고 유의미한 시간들로 채워주셨습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견지하며 소망 가운데 삶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선명한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친히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해가 바뀌어도, 우리의 모습이 변한다 하여도 에벤에셀,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은 성실하게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2022년 새 해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유의미한 날들로 채워 가실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해



북미주한인사렛성결교회 총연합회장 이성현 목사 (뉴욕행복한국교회)

새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의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지금처럼 전염병이 유행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간절할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쯤 이 어두운 터널이 끝이 날까 노심초사 하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이 다시 어둠으로 바뀌게 되면 그 실망은 더 크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소망의 빛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 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

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고 귀하고 크게 쓰임 받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일 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가정, 성도, 교회, 교계, 사업장, 신문사, 사회... 소망이 있습니다. 2022년에 영원한 빛이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경륜 믿으며 새로운 한해 힘찬 출발을



미주한기총 대표회장 이대우 목사 (필라한빛교회)

2021년도 만남 인사는 '많이 힘들었죠'입니다. 2021년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2021년 한해를 되돌아봅니다. 백신전쟁, 세계 질서, 미중 긴장, 압박 받는 기업들, 언택트 문화, 국제이동 감소, 기후변화, 다른 위험에 대한 경고 앞으로 인류는 어떤 위험에 먼저 대비해야 할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힘겨웠던 지난 한

해였지만 은혜 가운데 이겨 나가게 하시고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선하신 경륜을 믿는 가운데 새로운 한 해 그 첫 발걸음의 힘찬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21세기 인본주의 사조가 인간 정신문화를 지배하고, 또한 바이러스 질병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의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임을 절감합니다.

변화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변화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 미국과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롭고 순탄한 한 해를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구하여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각성하여 사랑의 시대를 만들어갈 때 오늘이 삶이 희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므로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기회를 잡으십시오"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장 김경도 목사 (플라워마운트교회)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팬데믹의 긴 터널에 놓여 있지만 새해에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화두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앞으로 없어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 것이며, 또 모든 분야에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질서를 낳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변화의 윤곽을 예측할 수 없지만 잘 대비해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엡 5:16)고 합니다. 이 말은 "기회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잘못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가정이 사랑 안에서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 목표

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 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은혜의 단비로 썩어 트고, 은혜의 햇빛으로 열매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와 햇빛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새해에는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경함하고 더 친밀해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패역한 시대 문화조류 향한 개혁적 미디어로



KAPC개혁장로회대학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 목사

예수 2022년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지난 2년간이었으나 다시 한 해를 넘기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위기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라고 말할 것처럼 저희 KAPC 직영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은 오히려 팬데믹 중에 학생 수가 늘고 계속적으로 충실한 수업을 해나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인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는 한국의 저명한 교수들을 모시고 Intensive로 수준 높은 강의를 듣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학교는 개혁주의 신학의 산실로 주님오시는 날까지 목회자를 양성하는 사명을 다하는 선지학교가 될 것입니다.

신도들에게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삶을 제시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기독교미디어의 사명을 선봉에 서서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패역한 이 시대와 문화와 조류를 향해 나 단선지자와 같은 날카로운 지적과 말의 채찍을 가진 개혁적인 미디어로 계속 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사 사장과 모든 직원들이 올해도 건강하시고 계속 발전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지금까지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또한 최선을 다해 극복하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을 등지고 이곳 미국에 이민 오신 동포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새해에도 계획한바 꿈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히 구독자인 디아스포라 평

신도들에게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삶을 제시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기독교미디어의 사명을 선봉에 서서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패역한 이 시대와 문화와 조류를 향해 나 단선지자와 같은 날카로운 지적과 말의 채찍을 가진 개혁적인 미디어로 계속 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사 사장과 모든 직원들이 올해도 건강하시고 계속 발전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지금까지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또한 최선을 다해 극복하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을 등지고 이곳 미국에 이민 오신 동포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새해에도 계획한바 꿈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로



C&MA 한인총회장 정재호 목사 (워싱턴제일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낙심과 좌절을 가슴에 담은 채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작년 봄부터 백신이 나왔고, 나온 백신을 맞으며 잠시나마 희망을 가졌으나, 이제는 다시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 세상은 결코 영원히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을 더욱 절감합니다. 올 한해 분명 쉽지 않은 한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렵기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며 더욱 의지하게 되니, 이는 분명 축복입니다.

아무췌록 2022년 올 한해, 주님 손 꼭 붙잡으시고 함께 늘 동

행하십시오, 승리하시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의 모든 독자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올 때 주님께서 주신 다음의 말씀을 함께 붙들십시오.

"아꿈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사 43:1-3).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응답 받는 제자로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최규남 총장

할렐루야! 미주크리스천신문 독자 여러분께 2022년 새해 인사 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는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팬데믹이 완전히 떠나가고 독자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정상화되고 출석하시는 교회마다 대면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가을학기부터는 대면수업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0-25절에서 기득권자들과 싸워야 하는 제자들을 위한 시정 각 교재로 저주하여 죽게 된 기

득권자들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 앞에서 주신 기득권자들과 싸워 이기는 방법 3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1.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존을 하는 것(22절) 2.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24절) 3. 내 옆의 성도를 사랑하는 것(25절)입니다.

2022년 새해에는 이 세 가지 승리의 비결대로 더욱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고, 내 옆의 성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상을 향해 달려가는 2022년



월드미션대학교 임성진 총장

팬데믹으로 인한 우려와 갈등이 여전히 많지만 인류는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 새로운 트렌드와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나노사회(nano society)로의 변화입니다. 나노는 길이의 단위로 1나노미터는 1미터의 10억분의 1을 나타냅니다.

인간 사회가 나노 단위로 쪼개진다는 것은 공동체가 그 만큼 작은 단위로 나뉜다는 것이고 개인중심의 파편화 사회로 급변함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취향이 나뉘다보면 산업이 세분화되고 트렌드도 미세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파편화된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차이를 이해하는 공감력입니다. 서로 공감하고 어우러지지 못하면 파편은 서로를 찢어대며 어렵게 할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내러티브 자본(tell me your narrative)으로의 변화입니다. 이야기의 힘이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서사는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서의미하게 존재할 수 있는 타당성을 부여하기에 생존을 의미합니다. 또, 내러티브는 공

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들로 볼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더욱 명약관화(明若觀火)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의 삶을 통해 공감과 사랑의 모티브를 나타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복음 이야기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교회는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왔지만 어찌 보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빌3:12). 올 한 해도 부르심에 상을 향해 호방이처럼 힘차게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과 은혜가 교회에 임하길



미드웨스턴침신대원 아시아부 학장 박성진 교수

2021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는 듯 암울함으로 가득한 해였습니다. 신년에는 예수님의 진정된 해방과 살림이 지구촌 곳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신음하는 세계가 마침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이 속히 도래하기를, 전쟁의 공포 속에 슬퍼하는 세계 도처에 평화가 임하기를,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미얀마와 홍콩의 시민들에게 자유의 기쁨이 임하기를, 종교의 자유를 잃어가는 중국의 시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누리라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년에는 예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한국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선으로 선

출된 지도자가 공정함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는 날이 도래하기를, 계급화와 오만적 차별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화합과 배려함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년에는 예수님의 기쁨과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중단된 예배와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기쁨이 임하기를, 코로나로 시작된 비대면 예배가 정착된 곳에서는 영적인 예배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더 이상 본질이 아닌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기쁨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행복하는 시간되길



미국장로교 전국한인총회장 이재호 목사 (휴스틴 한인중앙장로교회)

여전히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위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총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년 동안이나 우리 앞을 가로막고 버티고 있는 괴물 같은 바이러스, 비열하게도 숨어서 기생하고 증식하면서 온 세상의 숨통을 붙잡고 있습니다. 뜻밖에 멈춤의 시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Post 코로나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왔지만 이제는 With 코로나 속에서 적응하며

버티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Beyond 코로나를 외치면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in Christ Jesus 사람들 아닙니까? 멈춤이란 인생의 막간이 아니라 절정이라는 아브라함 헤셀의 증언은 안식의 멈춤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멈춤을 의미합니다.

멈춤 속에서 모든 투쟁과의 휴전을, 나아가 세상을 향한 저항을, 그리고 온전히 비로소 하나님께 행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기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군집 이루는 새해 들어가며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 총회장 신인규 목사 (종은마을교회)

지난 2년은 뜻밖에 찾아온 코비드19가 지구촌을 깊은 터널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외치는 소리가 터널 안에서 신음하는 모든 인류에게 소망의 항구인 새해에 닿을 울리게 했습니다. 소망은 절망을 이기게 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며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금년에는 세상이 확실히 든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외치고 소망의 삶이 넘치도록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갇힌다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찌 되었습니까?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서 갇힌다면 내 이웃은 여전히 터널 깊은 곳에서 신음하는 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마음껏 소망을 삶으로 외치며 이야기하는 그리스

도인의 삶에 충실하여 소망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비전을 향한 도전



미드웨스트대학교 총장 제임스 송 박사

지난 2년간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예상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팬데믹이 미래를 앞당겼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지난 가운데서도 여러 비상조치들을 긴급히 개발하고 사용했으며 그 중에는 놀라운 결과를 낳은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기술을 이용한 web Class, Zoom 컨퍼런스가 열렸고, 이런 새로운 소통의 공간을 통해 사람의 만남과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런 것을 미처 준비 하지 못한 기관들은 우왕좌왕하며 혼란을 빚기도 했고 미국 대학교 Online Teaching 경험이 없던 나이 많은 교수들이 감당하기 어려워 조기은퇴를 선언하여 대학들은 교수 부족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Zoom을 통한 교육도 효과적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Midwest University는 36년전 설립초기부터 On Campus와 Distant/Correspondence Education로 시작하여 Online teaching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교수나 학생들이 전혀 어려움 없이 진행했고 많은 동료들이 Midwest의 앞서가는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

로나19의 상황 같은 위기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시대의 교육혁신을 선도할 온라인 교수, 학습법 및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육 시스템 혁신을 통해 구성원에게 최적화된 차세대 정보화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하는 스마트 통합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너무 많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5:3-4)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앞당겨 이루시는 기회로 알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는 사람은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고 소원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나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With Jesus' 외치며 승리해야



AG 한국총회장 김웅철 목사 (늘푸른교회)

교계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계는 뜻하지 않은 팬데믹 시대를 지내며 지금까지 긴장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십니까? 그럼에도 2021년을 마무리 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언제까지 일지 모르나 'with Corona'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를 살아가는 'With Jesus'를 외치며 최선을 다해 극복하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을 등지고 이곳 미국으로 이민 오신 동포 여러분, 성도여러분! 아무리 험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2022년을 맞으며 계획하는 모든 꿈을 이뤄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빛 되신 예수그리스도 바라보며 바른길 찾길



순복음세계선교회복미총회장 김판호 목사 (순복음시카고교회)

2019년 겨울에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많은 직장도 사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제한되고 모임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와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예측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 소위 '뉴노멀

(New Normal)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간의 표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가치 표준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19가 가져온 혼돈과 충격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 미래를 예측하며 나름의 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이것이 정말

이라고 확언할 수 없습니다.

재앙의 영어 단어 'disaster'는 '사라지다'의 의미의 'dis'와 '멸'을 뜻하는 'aster'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나침반이 없던 시대에는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았는데,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 별을 볼 수 없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이 사라진 상황을 재앙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시길 것입니다. 2022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 - 신학적(교회론적) 접근

성도들이 '교회'로 살아가야 할 시대

현실

세상이 달라졌다. 지난 2년간 지속된 팬데믹은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학자들은 중심으로 '뉴노멀(New Normal)'이란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처음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과거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과거 유럽과 미국에서 치명적인 팬데믹이 기승을 부렸지만 결국 사라진 것처럼 이번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겨낼 것이라는 긍정적 목소리도 있었다.

2021년 연말을 기점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 2차에 걸친 백신접종과 부스터샷으로도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막기 힘들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자 전 세계는 재차 충격에 빠졌다. '위드 코로나(With Covid)', 즉 방역체계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기에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포기해야 되었기 때문이다. 식당사용과 여행, 그리고 스포츠모임과 같이 여럿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이제는 스스로 외출을 자제한다. 두려움 때문이다. 주위에 코로나로 인해 중병을 앓거나 사망한 지인을 통해 바이러스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심을 교회로 돌려보자. 앞으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답을 얻기 위해 먼저 지난 2년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자.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 가장 두드러진 것은 '모이는 교회'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전통적 의미에서 교회는 흠뻑여 살던 성도들이 주일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으로 이해되어왔다. 교회를 교회당 건물로 오해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모일 수 없다는 것은 곧 교회가 교회되기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론적 제안이 있지만 이 역시 현실이 가로막고 있다.

변화

중세 이후 교회는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여왔다. 서구역사는 곧 교회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하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교사들의 병원사업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봉사 등이 조국 근대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활동하던 진보적 사회복음주의자들의 주된 관심은 사회적 정의와 빈곤의 문제와 같은 사회적 주제들이었다. 그들은 전통적 속죄 교리를 포기할 정도로 이타주의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현재 교회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미흡하다. 세속화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미 17세기부터 인간중심의 사상이 사회 안에 깊숙이

부를 해체시키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었지만 어떤 형태라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한국정부는 코로나 초기에 의도적으로 공적예배를 규제한 바 있다. 다른 모임들은 허용하는 상황에서 교회는 예배를 '강행'한다며 일방적인 여론을 퍼트렸다. 교회가 코로나바이러스를 퍼트린 주범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교회가 자유롭게 못하는 상황이다.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눈이 매우 날카롭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해왔고, 교회공동체를 거부하는 '가나안' 성도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이 덮친 것이다.

인터넷 예배는 어떤 형태라도 수용할 수 없다며 원전적으로 거부하던 교회들이 고개를 숙였다.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

보이는 교회'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 교회의 다른 양상이란 사실을 강조하였다.

만일 교회란 오직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라고 주장한다면 '보이는 교회'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전통적 가르침을 포기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자 강조점이 달랐지만 적어도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그 중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고민했던 중요한 내용이 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확산되자 가톨릭교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 중 하나가 절대적인 국왕의 힘을 빌려 교회공동체가 예배로 모이는 것을 엄히 금하고, 반드시 구교미사에 참석하도록 강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말씀의 선포와 성찬이 박탈당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 무리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호소하였다.

교회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가 변화되었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가 주도하여 새로운 상황을 헤쳐가야 할 것이다. 그 방법 중 하나로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개념정리와 실천을 적극 권장한다. 성도 자신이 특정 지역교회에 속하였지만 근원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통

간이 많아진 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구원과 성화의 삶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인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앞으로 교회는 각 성도들이 스스로 경건생활을 영위하여 성장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공동체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는 더욱 약해질 것이다. 어려운 팬데믹을 지나면서 소그룹 지도자들을 잘 세운 교회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섭리

교회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이다. 2년간 지속되어온 이번 팬데믹을 통해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보이는 교회'의 수적 성장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관심사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욱 큰 힘을 가진 교회를 요구하신 적이 없다. 도리어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진정한 성도들이 거칠고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도 영적 영향력을 지니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지난 2천년의 교회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우셨다.

앞으로 팬데믹이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팬데믹을 허락하신 그 분께서 적절한 시간에 거두어 가실 것이다.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상황을 바라보자. 힘들다 어렵다고 생각하여 빨리 지나갈 것을 기대하기 전에 모든 상황을 아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교훈을 겸손하고 심각한 자세로 받아들이자. 지금이야말로 성도들이 '교회'로 살아가야 할 시대이다.

'모이는 교회' 너머 세상으로 '흠뻑여지는 교회' 강조돼야

구원과 성화의 삶은 개인적... 삶으로 예배 중요성 실천

자리잡아왔고, 20세기 이후에는 신학의 세속화가 급히 진행되어 초월적 하나님을 거부하는 신론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에 맞서 교회는 세속화된 세상과 담을 쌓고 순수한 영적인 집단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부담감이 발동한 듯하다. 보수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더욱 앞장선 것이다. 좋은 교회란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더욱 성경적이며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충실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다.

팬데믹이란 대단한 영향력은 교회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다. 잘하는 것, 바른 것에 대한 정의를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과거 교회는 마치 도피성과 같은 것이었다. 심지어 민주화운동이 한창 진행될 때에도, 정부는 교회건물 안에 숨은 용의자들을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대학부 또는 청년

것이다. 언젠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도 '대면'과 '비대면' 모두 정당한 예배로 할 수 밖에 없다. '비대면 예배'가 비성경적이라는 주장이 지닌 논리적 모순 때문이다.

전통

교회는 전통적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를 구분하여왔다.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정의했다. 나아가서 공동체로 모이는 '보이는 교회' 안에는 구원을 받은 자들과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이 함께 섞여 있으나,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그 구분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어거스틴의 사상을 좀 더 구체화 하였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다. 개혁자 칼빈이 사역하던 당시 프랑크개척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런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 소위 '니고데모파'가 생겨났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 할 수없이 미사에 참석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개혁주의가 가르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자들이 생겨난 것이다.

칼빈은 니고데모파의 행동을 지적하며 미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하였다.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혁신앙을 지키다 순교하던지 아예 프랑스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개혁자들의 사상이 퍼져가는 곳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핍박이 진행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여 교회의 표지인

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음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강조하고 부르심을 받은 개인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제는 '모이는 교회'를 너머 세상으로 '흠뻑여지는 교회'가 강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성도다운 삶과 행동을 위해 노력하였다면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성도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예배는 신앙을 위해 근본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지금까지 공동체 예배에만 묶여 있었다면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서의 예배의 중요성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성도라면 반드시 지역교회에 속해 어떤 형태라도 정기적으로 말씀을 받고 성찬에 참여하여야 한다. 동시에 팬데믹으로 인해 홀로 지내는 시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증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p>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p>	<p>전화: 646-501-3673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p>
-----------------------------------------------------------------------------------------------------------------------------------	----------------------------------------------------------------------------------------------------------------------------------------------------------------------------------------------------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청빙



토랜스선한목자교회는 미국 Los Angeles 지역에 위치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소속 교회로서 2001년 6월에 설립된 이후 20년 동안 2세 교육과 복음전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온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2022년 정년으로 은퇴하시기에 2대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자격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정규 신학대학원(M.Div.) 이상의 학위 취득자
- 목사안수 받은 후 목회경력: 5년 이상(부목사 포함) / 이민목회 경험자
- 이중언어 (한국어와 영어) 가능하신 분
-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 이력서
- 최근 설교 동영상 혹은 오디오 2편
- 자기 소개서 (목회소명/ 목회경험/ 신앙고백/ 성장배경/ 가족 소개와 가족 사진/ 신앙간증/ 목회 비전 및 계획)
- 추천인 3인의 추천서
- 목사 안수증
- 졸업 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제출 마감일: 2022년 3월 21일
제출처: rsong1010@gmail.com

기타:

- 서류는 email 로만 접수합니다(Word, PDF).
-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심사 후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모든 문의는 email 로만 받습니다.
- 청빙 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합니다.

토랜스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2531 W. 237 th St, Torrance, CA90505 | www.tgsc.org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 - 목회적 접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명 위해 살라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1. 성경적인 목회자에게 드리는 질문과 진단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성경적 목회가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교회를 이해하고 성경에서 가르친 원리대로 목회해야 했던 것이 변해야 할 것인가? 종교개혁기와 근대과 포스트모던시대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전과 이후와 같이 목회적 환경과 상황에 따라 목회자들은 변화된 옷을 입고 그 시대에 부합되게 의처야 할 것인가? 이제까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목회를 하는 일 자체가 위기에 와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런 때에 개혁주의의 원리에 충실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당신은 성경을 완전히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있는가? 둘째, 당신은 주어진 계시의 역사에 충실하면서, 그런 구속의 역사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가? 셋째, 당신은 성경에 가장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주어져 있다고 믿고, 그런 교회를 구현하는 방식도 이미 성경에 주어져 있다고 믿어 실행하고 있는가?

개혁신앙의 목회자라고 고백함으로,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원리로 믿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충실하게 따르기보다 실제적인 면에서 계시의 역사적 이해에 충실하지 않음으로, 성경에 따른 교회를 구현하는 방식에 충실하지 않음으로 실천에 있어서는 매우 관용적이고 실질적인 양보와 절충으로 나아가는 목회자일 수 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가? 개혁신앙의 원리에 충실하다는 것은 모든 반면 특히 팬데믹의 상황과 국면에 처한 목회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 목회자들은 이 with-Covid Pandemic 상황에서도 개혁신앙원칙에 충실하여 성경이 말하는 교회 이해를 분명히

하고 그런 교회를 드러내는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새로운 원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결단의 시점에서 있다. 구약시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팬데믹은 그 역사 속의 각 시기마다 각기 그때의 과제와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2. With-Pandemic 속에 목회자는 어떤 목회적 상황을 대면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적 목회자가 지향해야 할 것과 지양해야 할 것에 대한 성경적인 구분과 선택이 필요하다. 팬데믹의 상황에 대한 분석과 변화(transformation)를 위한 도전 앞에 선 목회자는 다음의 상황에 대한 개혁신앙적 답변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1)대면접촉이 기피되는 사회

목회에 있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소통(communication) 중심으로 목회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4)팬데믹 가운데 위기에 처한 인간심정을 잘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심리학적 기제들(psychological mechanism)과 인간의 문제와 욕구를 그대로 수용하려는 사람의 필요중심(people need-centered)의 목회를 지향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와 목회로 점점 변화되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그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초월하여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에 참여하며 예배 외의 다른 모임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5)경제적인 위축으로 인해 성도들이 교회공동체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헌금을 못

쳐야 할 현실에 대해 먼저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

3. With-Covid 시대에 개혁신앙 입장에서 목회관

개혁주의 신앙이란 신학적 역사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성경중심적인 신학과 신앙관을 말한다. 개혁신앙 목회자라면 여전히 종교개혁의 5대 가치를 팬데믹 시대에도 적용할 것이다. 개혁신앙과 신학의 핵심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그리스도(sola Christus),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soli Deo gloria)가 목회의 모든 방면에 시시각각 적용되고 있는지를 자문해야 한다.

개혁주의 목회자라면 이런

과 현실 혹은 초현실)의 시대(cyberspace and meta-universe)의 목회자는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먼저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예배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이고 보충적이고 대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모든 것은 인격적, 영적, 공동체적 요소들을 매우 삭감시킬 수밖에 없으며 성경의 역사하심에 대해 회의적이다. 불가피하게 가상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성도들의 특별한 환경(건강, 노약자, 긴급 상황)을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예배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영과 진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히10:25)는 변치 않는 명백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개혁교회의 신앙을 가장 잘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 신자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공적 집회에서 더 엄숙하게 예배할 수 있고 때문에 이런 집회를 임의로 소홀히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며(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21:6), 칼빈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모인들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며, 우리의 삶의 경험 자체가 그 모임들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표지가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기독교강요 2.3.32). 성도는 질병 혹은 감염의 이유뿐만 아니라 시대와 사건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는 모여 예배하는 것을 더욱 사모해야 한다.

본질 붙잡는 말씀과 기도운동 종말신앙으로 각성시킬 기회 회개로 영적회복 모든 상황 속 복음증거 하는 메시지 전해

이기에, 교회공동체도 주로 대면하지 않는 식으로 하는 목회를 개발해야 하겠다는 시도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성도들은 사이버 공간(cyber space)에서 송출되는 인기 있고 탁월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시청하는지에 집중하게 되어 목회자는 '구매자위주(consumer-centered)'의 설교 목회를 추구할 가능성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2)팬데믹으로 교회의 선교의 관심과 집중이 있어 후퇴하고 있는 형편에 처하며 이에 With pandemic의 현실에서 선교 자체를 축소하거나 소홀히 할 불가피한 교회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3)다양한 모든 상황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 이제 성경과 대면하여 성령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할 수 있는 형편에 이를 수 있다. 이때 목회자는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동정하며 위로하며 권고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나라의 헌신에 대한 강조와 설교보다는 위로와 격려와 그들의 심정에 도움을 주는 일을 전력함으로 헌신과 훈련과 책망의 교훈에 대해서는 점점 희박하게 될 수 있다.

6)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러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의식 때문에 교회공동체의 필수적인 것도 양보하게 되어 형식과 본질의 차이를 혼동하게 될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가상과 현실이 점점 모호해지며 국경이 없어지는 세상이 살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Meta-Universe)의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용과 적용에 대한 비판과 제한된 사용에 대해 리더로서의 목회자가 반드시 부딪

쳐야 할 현실에 대해 먼저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 3. With-Covid 시대에 개혁신앙 입장에서 목회관 개혁주의 신앙이란 신학적 역사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성경중심적인 신학과 신앙관을 말한다. 개혁신앙 목회자라면 여전히 종교개혁의 5대 가치를 팬데믹 시대에도 적용할 것이다. 개혁신앙과 신학의 핵심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그리스도(sola Christus),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soli Deo gloria)가 목회의 모든 방면에 시시각각 적용되고 있는지를 자문해야 한다. 개혁주의 목회자라면 이런

로 지도함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With-pandemic 에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며 성경적인가를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 바를 예배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mission)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일상생활로 하나님을 섬겨 가는 일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예배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장소에 모여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는 항상 강조되어야 한다(바울서신서의 지역교회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18:20), 즉 실제적인 경우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1)가상공간, 혼합공간(가상

2)지나온 팬데믹 시간의 경험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 없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강조해야 한다. 이런 팬데믹을 신앙적으로 경험한 성도들은 성도의 교통(koinonia)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이 전보다 더 깊이 있는 성도의 교통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대면의 교제가 중심이 되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비대면의 교제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보충적이고 제한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소그룹, 청소년 교육, 심방과 상담, 회의 등은 사이버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4)의 혁명시대라고 말하는 코로나혁명의 시대에 이에 대한 신학적 준비가 필요하다. 벌써 청소년들의 교육에 현장에 활용되고 있지만 다가올 메타버스에 대한 성경적이고 개혁신앙적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안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예배: 오전 10:00 영양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예배: 오전 1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오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2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c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예배: 오전 11:20 영양예배: 오전 11:20 영양예배: 오전 11:20 2부: 오전 11:20 Tel: (310)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금 오 예 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정영자 목사 "세속에 물어쳐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오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오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 오 예 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타역원 원장: 박은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협동목사) 성당사역: (월-금)오전 10시오후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청년도 여성리더 사역: 1. 복음선전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크 사역 www.elpistafamily.org Tel: (213)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새벽기도반: 365일 24시간 오픈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오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영양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저녁 8:00 목요기도회: 오전 5:30(화-토)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오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tc.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M. 예 배: 오전 9:45(101회)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 오 예 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오전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g.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오예배: 오전 6:30(화-토) 수오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기도: (월-토)오전5:30(본당) Tel: (213)500-2948, doc.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신년좌담 /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

참석자: 김바나바 목사(퀸즈한인교회)
김학진 목사(뉴욕장로교회)
박형은 목사(뉴저지초대교회)

사회자: 김성국 목사(발행인, 퀸즈장로교회)

일시: 2021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신문사 회의실(퀸즈장로교회)

본지는 2022년 새해를 맞으며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발행인 김성국 목사의 지도로 시작한 좌담회는 박형은 목사의 마무리 지도로 마쳤다. 김성국 목사는 2022년 저물어가는 이 때에 각 교회를 지키다가 함께 모여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

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나누며 지면을 통해 이 민교회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박형은 목사는 오랫동안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고 은혜 받고 이 일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했다.



김성국 목사

-김성국 목사(성):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끝나지 않았으며 이제 함께 가야 할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한인교회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뉴욕일원의 대표성을 가진 교회 담임목사님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목회자로서 교회내 사역과 지역 교회 및 사회에 대한 고견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청년 목회자로서 교회내 사역에 대해 한 번씩 순서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은 목사(박): 저는 LA 동양선교교회에 있다가 뉴저지 초대교회 부임한지 4년반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설립된 후 36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온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셋업돼 있어서 편안하고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편안하다보니 안주하고 싶고 '변화'를 추구하기는 힘든 면이 있죠. 기업이나 교회나 마찬가지로 위기에 처할 때 변화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 10살에 왔는데 1세 목회를 하는 게 쉽지 않았고 또 생각하지 못했지만 개혁적 삶속에 살아있는 신앙을 위해서는 1세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1세 목회에 뛰어들지 벌써 13년이 됐네요. 1세들은 잘 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젊은 부모들의 세습적 가치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이 학군이 좋아서 그런지...(웃음).

김학진(학): 저는 뉴욕장로교회에 2018년 7월 부임해서 3년 반쯤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성장하고 사역하다가 한국 사

랑의교회(당시 담임 옥한흠 목사)에서 10년 간 사역했습니다. 옥 목사의 목회사역을 보면서 큰 그림 속에서 건강한 교회를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이들을 위한 문화선교를 위해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에서 7년을 사역하면서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뉴욕장로교회는 5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교회 청빙을 받으면 3년은 배우는 기간으로 삼아 관계와 신뢰를 쌓고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청사진을 그려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2006년 이후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제가 5대 담임인데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안정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비전을 목표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가주에서 오래 살았는데 뉴욕에 사는 분들이 더 힘겨운 것 같습니다. 서민적 목회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교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상처를 회복시키는 목양적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를 일으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힘이 되고 섬겨야 하는데, 제 스타일이 유지만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리바이벌, 무브먼트... 무너진 다음세대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즉 하이브리드 목회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이민자가 오지 않는 사회, 이런 컨텍스트 안에서 아날로그세대와 MZ 세대의 양극단에서 어떻게 건강

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까? 그러나 남은 목회기간 동안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김바나바(바): 저는 한인교회 담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교수직이 소명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면에서 퀸즈한인교회가 용감하고 열려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사모가 외국인).



지난해 12월16일 본지가 소재한 퀸즈장로교회 회의실에서 신년좌담이 진행됐다

코로나로 본질 회귀 자연스레 이뤄져 교회 핵심요소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부임한지 3년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이 좋습니다. 사역의 많은 시간을 선교사로 청년부 사역자로 보냈는데, 뉴욕이라는 도시는 청년성이 있습니다. 뉴욕이 시니어들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청년성이죠. 그래서 제 캐릭터나 목회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한 용사는 멈추지 않는다', 교회는 네버 스타프(never stop) 이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교회 내에서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기회가 똑같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백지상태에서 승부해야 하게 됐죠. 코로나 파도가 몰려오면서 비본질적인 것들, 우리 힘으로 거둬낼 수 없었던 것들이 자연스레 파도와 맞서면서 본질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즉 예배의 진정한 본질만 남겨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위드

코로나는 교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교회답지 못했던 사교집단, 이익집단 등은 건물 빼고 다 거둬갔습니다. 우리에게 새 도화지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셔서 예배와 모든 부분에 새 역사를 주셨다고 봅니다.

-성: 박형은 목사님께서 변화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담임 목사로서 힘든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있을까요?

박: 초대교회 역대 담임목사님들은 심방, 시스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청빙 받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있는 것은 누리면서 다음세대 살리기를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DNA 체인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이나 양보를 싫어하는 것이 모든 교회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세대 소중함은 알지만 희생하려는 정신이 부족한 것이죠. 예

정현 목사님은 그 바탕 위에 글로벌 사역으로 확대해서 시대에 맞는 플랫폼을 구축해 성도들의 은사를 활용함으로 목양적 부분에서 놓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 교인들은 옛날의 영광을 추억하시며 올드 스타일을 주장하시는데, 팬데믹에서는 온라인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큰 숙제로 다가옵니다.

-성: 초대교회에서 교사세미나를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소개해주시죠.

박: 그건 주일학교 교사훈련입니다. '기독교교육'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사실 한 주일에 몇 시간밖에 못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Generation to Generation)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죠.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



김학진 목사

침몰해서 1천여 명 학생들이 아직도 대면수업을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학교를 빌려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있지만 학교가 교회를 빌리는 경우는 좀 드문데, 교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일단 6개월간 학교에게 빌려주기로 했는데, 학교 수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교인들도 좋아하고 지역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도 좋아졌습니다.

-성: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가? 교회는 어떠한가? 핵심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바: 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방법과 함께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최신적인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팬데믹 동안에 교회 핵심요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등 기본진리 외에 모든 것을 거둬 가지고 간소화 시켜서 찬양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친교 개념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심방인데, 코로나시기에 가장 강력한 것은 심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엔 정규 심방을 하려고 합니다.

또 교회는 다음세대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다음세대 개념이 모호해졌는데, 영어를 잘하는 세대? 혹은 중고등부...? 저에게 다음세대는 20대 청년, 30대 부부, 한국어를 사용하는 세대가 다음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뼈를 깎아서 붙여야 합니다.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못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젊은이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박: 브라질에서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아마존 부족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부족들에게 설교하실 때 입을 고하시는지 여쭙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말하는 영성, 경건의 모습, 이런 것들이 코로나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음세대에는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교회가 변화하는 디지털 세대를 할렙거리며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9면으로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46: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미주크리스천신문 직원 일동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신년좌담 /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



박형은 목사

<8면에서 계속>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떠나는 숫자가 90%라고 하는데 디지털 도구로 그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신앙유산이 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움직입니다. 교회가 감동을 줘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가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 삶의 변화로 감동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고민은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기도생활을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 없는 성공은 최고의 비극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성공은 강조하지만 그 성공은 경제적 성공이고 그 후 삶에 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20년 묵회하면서 돌아오는 교인(자녀)들을 설문조사했는데 교회를 떠난 이유는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떠났지만 그래도 돌아

고 볼 수 있겠죠. 교회는 1세대가 세웠지만 2세대에게 전수하지 못한 거죠.

얼마 전에 KCCC 리더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2세대를 위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한 분이 있었습니다. 논문의 결론은 디아스포라 역사를 보면 타인종 2세대의 경우 신앙 정착률이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인은 60-70%(교회 출석자 아니고 신앙유지율)라며 1세 부모들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무적이긴 합니다.

박: 저희 교회에 20, 30대 모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에서 한번 시행해 봤는데 반박이 많았죠. 본질인 예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정이 편해야 교회에서도 잘 섬기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목회자 가정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 우리가 위드 코로나시대를 살아가야 하지만 가상현실 시대도 잡고 살아야 하는데, 강력한 IT 세상의 역기능이 어떻게 풀고 나가야 할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했는데 백만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메타버스에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창조적으로 사용하면 오프라인 지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파워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대립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이브리드 위드 코로나는 함께 가야 하는 것처럼 기회를 만들어 좋은 콘텐츠로 온라인을 사용합니다. 저희 교회 내 룸에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 속에서 교회가 선도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 놓은 터미널리지, 세상의 부스러기 화두에 너무 집중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 어깨를 빌려주어서 다음세대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선교에 대한 대안이냐 방향을 제시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 저는 가정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선교적 삶을 살도록 해야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위 모든 사람

3년에 걸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구간다에 갑니다. 사실 장기선교사들이 대부분 단기선교사 출신이죠. 그 안에서 육성을 가리기 원합니다.

뉴욕만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만 갈 수 있는 곳은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데(선교적 측면에서), 한국은 큰 선교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지요. 고등부 자녀들이 시골 교회들을 방문해 영어교실을 오픈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합니다. 뉴욕이 커가 되는 게 전 세계 젊은이들의 꿈인데 우리 유능한 2세대들이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선교에 초점... 신앙교육은 부모 책임, 선교도 가족단위로

다음세대 살리기 위해 DNA 바뀌어

임(모자익)이 있습니다. 2세대로 영여권인데 연령이 40, 50, 60대들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펜데믹에 시작해 현재 12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재밌다고 합니다. 제가 꿈꿔왔던 것,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인 셈이죠.

펜데믹 상황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저는 역시 가정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도 가족단위로 가라, '목적 있는 휴가'인데 펜데믹 전에 도미니카,

학: 저는 'C'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합니다. 코로나(Corona) 시대 가운데 교회가 문화(Culture) 컨텍스트(Context) 안에서 콘텐츠(Contents)를 예수 그리스도(Christ) 안에서 만들어야 하는가? 교회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온라인, 디지털, 펼쳐, 메타버스 등 이 시대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디지털 세계 가운데 모바일 세계(마사)이 추장도 삼성폰을 사용

바: 메타버스에 대해 2가지 의미로 생각해보면 초월적 세계와 가상적 세계로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을 하자면 초월적 세계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구약의 예언적 세계가 가상적 세계로, 예수님 후에는 초월적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함몰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 진정한 메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두 달쯤 됐을 때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1년 후 2020년 말부터 유튜브

들이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선교보다는 오픈 마인드가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김바나바 목사

다. 사실 단기선교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장기선교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페루에 구축한 선교관에서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선교지로 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편으론 장기선교에 은퇴자가 많아 고민도 됩니다(웃음).

바: 선교 패러다임은 90년대부터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잘 안됩니다. 왜 안 바뀌까요? 결국은 양과 질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양이 많아야 즉, 단기선교를 많이 보내면 장기선교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교회에 주어진 파송선교사의 노령화로 젊은 선교사 파송을

학: 교회는 커뮤니티 안에 있으므로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품고 가야 합니다. 뉴욕에 다민족 커뮤니티를 품고 다민족 플랫폼으로서 세계 선교와 연결시키며 교회에서 세대를 초월해 땅끝까지 나가는 방식입니다. 제 선교지 목회 경험에 의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파송된 선교사를 격려 후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회 자체가 한 커뮤니티(캄보디아나 남미 등)를 임양하는 것입니다.

한 커뮤니티 안에 모든 콘텐츠가 있습니다. 교육, 병원, 농업, 침, 한방 등 각 은사를 한 커뮤니티(동네)에 집중해서 일년 내내 필요한 것을 제공함으로써 한 커뮤니티를 온전하게 품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품는 선교적 교회가 됩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축할까를 생각할 때 선교사 주체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나 다음 단계는 교회가 주체로 섬기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 연말에 바쁘신데 있어서 성격적이고 현실적인 통찰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제 자신에게도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를 서로 기도제목으로 삼고 2022년을 소망 가운데 맞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다민족커뮤니티 품고 다민족 플랫폼으로 세계선교와 연결 아날로그와 함께 디지털 활용 하이브리드 목회로

은 이유는 '자기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는 것이 좋아서'라고 답했습니다.

자녀들이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다닌다며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고 하는데, 한 가지 교회를 안다녀요 하고 말하면서 부끄럼이 없습니다.

학: 문화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2세대와 접촉이 없습니다. 이민교회의 아픔이라

페루에 서너 팀이 자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선교활동에 감동합니다. 언어가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생활 힘든 것 해소할 장소를 교회로 삼으면 부정적이 되고 가정도 망가지고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문제 있는 중직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다녀게 됩니다.

저는 임직자를 세울 때 가정과 직장에서 추천서를 받아오

한다, 문화 속에서 땅끝 선교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아날로그 오프라인만 주장하지 말고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디지털에 열려있어서 목양적 영성적 선교적으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장로교회에는 다민족이 많습니. 그중에 네팔회중을 담당하는 네팔 목사가님이 요청해서서 영상으로 복음을

생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모임을 자제하고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메타이신 주님이 계시고 또 가정에서 그 중요한 시기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세대는 우리보다 모든 것을 잘 합니다. 그들이 하려고 할 때 자리만 내주면 (본질을 지키면서) 됩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기후위기

산불, 폭염,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더라도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있어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현저한 긴급성의 결여가 만연하고 있다. 더구나 탈탄소화는 지정학적 경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처럼 서방과 중국이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허버드의 태양지질공학 연구팀을 주시하라. 2022년, 그들은 희미한 햇빛에 먼지를 방출하기 위해 고공풍선을 사용하는 것을 시험하기를 원한다. 이 기술은, 이 속도로는, 세계의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벌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

여행문제

명교회) 사회로 진행된 총장환영회에서 이후정 총장은 "총장 취임 후 제일먼저 남가주지역 선후배 동문들을 만나게 돼 너무 감사하다"며 "그동안 감신대 교수들의 분열과 반목이 큰 문제였으나 지금은 화합의 분위기다. 지난 2년반 동안 교수 28명은 매주 삼각산 감람기도에 들어가 기도회와 펠로우십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가 다시 회복되면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이 제로코로나 "역제"전략을 추구했던 나라들은 바이러스가 만연해있는 세계로 이행하는 것을 관리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제에 직면해있다. 한편 출장의 절반은 영원히 사라진다. 그것은 지구에는 좋지만 여행에 많은 돈을 쓰는 사업여행자들에게는 좋지 않다.

우주 개발 경쟁

2022년은 경쟁적인 우주개발 회사들에 의해 높이 운반되는 정부직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료승객으로 우주에 가는 첫 해가 될 것이다. 중국은 새로

운 우주정거장을 완성할 것이다. 영화 제작자들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그리고 나사(NASA)는 할리우드 영화처럼 들리는 실제임무에서 우주탐사선을 소행성에 충돌시킬 것이다.

스포츠와 정치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카타르 축구월드컵은 스포츠가 어떻게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스포츠 행사가 종종 정치적 대결로 귀결되는지를 상기시켜줄 것이다. 비록 국가대표팀의 보이콧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두 개최국을 향한 항의가 예상된다.

부터가 시작"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상영 목사(동문회 부회장, 카마리온 KUMC)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신병욱 목사(총무)의 기도, 김웅민 목사(UMC 은퇴) 부부의 색스폰 연주(바하의 Jesu, Joy of Men's Desiring), 정용지 목사(남가주 감리교원로목사회 회장)의 설교('고난이 조 선물'), 이후정 총장소개와 총장 인사, 질의응답, 이장순 목사(UMC 은퇴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팬데믹 3년...

(2면에서 계속)

암호화폐의 급성장

모든 파괴적 기술과 마찬가지로 규제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암호화폐가 국산화되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또한 그들의 중앙 집중화 된 디지털화폐를 출시하려고 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더욱 심화될 금융의 미래를 위한 3파전-암호-블록체인-DeFi(암호화폐를 통한비중앙통제 재정), 보다 전통적인 기술기업들, 그리고 중앙은행들 간의 싸움이다.

이후정 감신대총장 환영회 및 성탄축하예배

감신대 미서부지역 동문회(회장 조건갑 목사) 주최 성탄 축하예배 및 이후정 감신대 총장 환영회가 지난 21일 오전 11시 로스펠리츠연합감리교회(담임 신병욱 목사)에서 동문가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환영회, 2부 오찬과 교제로 진행됐다. 지성은 목사(부회장, 벨리새생

피종진 목사 1월 2022년도 국내 외 성회일정

○ 단국대학교 총동창회 자원위원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대표교문
 ○ 서울대학교(ABK)제12기 원우회교문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토) 오전 연일산기도원(원정 이영국 목사) 신년선상목회대성회 ☎(031) 585-1004
 주지 (사) 한국기독교부흥사단제총연합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중앙대표회장 안영문 목사, 대외총장 정사부영목사)
 2(주) 오후 서울 한국문인교회 (박재현 목사) 010-7704-7272 장소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13층 3(월) 오전 첫사랑 안병욱 선교센터 신년예배 축복성회 (김인규 목사) 010-5301-8220
 21C 광명선교회 (대표회장 최진구 목사) 010-5148-9722 신년성회
 3(월) 오전 천안 위대연합교회 (윤재민 목사) 010-6352-0691
 4(월)-5(수) 기독교 국제연합 (Christian United Nation) 대표회장 안영수 목사 010-8082-9569 장소 종로예전도원대극장
 6(목) 저녁 세종명예의동산 (원정 피종진 목사) ☎(041)852-2211 신년축복대성회
 7(금) 오전 국민일보 국민부흥원 (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총재 고종진 목사)010-3899-0691 대표회장 조영우 목사 장소 국민일보 12층
 7(금) 오후 양성 공범어복교회 (김현수 목사) 주지 지선영 (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8(토) 오후 인천 반석순복음교회 (김도보라 목사) 010-8954-8956
 9(주) 오전 서울 임마누엘교회 (장요안 목사) 010-2393-0616
 10(월)오전 연세대학교 연일산기도원 총동문회 (대표회장 이희수 목사) 010-6392-6904
 10(월)오전 서울대학교 최고위과정 (ABK) Art robots ethical
 11(월)오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안영문 목사) 대표위원장 취임식 장소 서울연세대학교 지구촌 복음화 기도 운동본부 (총재 남보석 목사)
 11(월)오전 장소 성남주영교회 (전국원 목사) 010-2445-169111(월)-12(수) 제 4차 기도회 중사 주지자 제주 특별 컨퍼런스 주지 안민준 목사와 부흥운동본부 & 한국교회예배문화복음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기성 목사 010-5270-7105
 장소 제주도 제주비스타호텔 13(목)-15(토) 연세대학교 최고위과정 (ABK) graduation trip
 22(토)오전 장소 제주도 RAMADA PLAZA 제주호텔
 23(주)저녁 태안 한미순교의 주지 뉴클론별 부흥사회 (대표회장 정태은 목사) 010-7724-1441
 24(월)오전 상주 정리교회 (김재원 목사) 010-9335-3662
 24(월)오전 서울대학교 최고위과정 (ABK) The World of Country music
 24(월)오전 오산 주시경교회 (김승호 목사) 010-7522-0236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 62
 25(월)오전 World 기독교 총연합회 (이사장 정인희 목사 총재 정종호 목사)
 장소 서울신학교 (학정 김은환 목사) 010-7567-8291
 28(금)오전 (사) 한국기독교부흥연합회 (대표회장 정대영목사 사무총장 김승수 목사) 010-5309-0091
 30(주)저녁 서울 열린교회 (김인준 목사) 010-8633-0190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s.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 - 역사적 접근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

이 말씀은 코비드19 위기가 밀어닥친 2020년, 세계 유버전(YouVersion) 앱(app)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읽고 나눈 구절(Verse of the Year)이라 한다. 그 해 연말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유버전 사용자들이 앱 상에서 1,500여 언어로 읽은 성경의 장 수는 무려 436억(43.6 billion)장에 달했으며, 사용자들이 앱에서 밑줄을 긋거나 서로 공유한 구절은 25억(2.5 billion)절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2021년도에 유버전 앱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읽고 나눈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2021년 12월 1일 유버전 측이 올린 보도 자료에 따르면 유버전 사용자들은 2021년 한 해 동안 앱 상에서 1,750여 언어로 무려 558억(55.8 billion)장의 성경을 읽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고 나눈 구절은 다른 아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이 2년을 채우고 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성경 독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목상한다는 이와 같은 보도는 모든 교회에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성도들은 판데믹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고 굳세게 하시며 또 도우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목상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실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통계자료는 때때로 대표 값에 가려진 지역 값을 볼 때 더 실질적인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곤 하다. 다만 공개된 나라별 자료가 들쭉날쭉하고 또 수치를 담고 있지도 않아서 어렵게 파악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나, 지난 몇 년 간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다음의 몇 가지 내용을 짚어 본다.

첫째, 이사야 41:10과 빌립보서 4:6 말씀은 2020년 펜데믹이 시작되며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해주었다. 이사야의 말씀은 미국, 남아공과 더불어 인도, 필리핀, 네덜란드 등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찾고 나눈 말씀이었고, 빌립보서 말씀은 브라질을 비롯해 가나, 태국, 뉴질랜드 등지에서 많은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었다.

그런데 아시아와 빌립보서의 이 두 말씀은 펜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이미 전 세계 성도들이 가

에게 다칠 바벨론 유수를 두고 미리 이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다. 그 조상 야곱의 경우도 다를 바 없었다. 요셉으로부터 기별을 받고 애굽으로 향하고자 한 그에게 하나님은 앞서 말씀으로 그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창46:3-4).

그렇다. 우리에게 펜데믹은 느닷없이 밀어닥친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말씀으로 미리 준비시키셨다. 앞서 행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

미국인들이 우려하는 것들에 대해 순위를 매긴 바 있는데, 설문을 위해 채택된 여섯 가지 설정 상황 중 개인 건강의 위기가 응답자들이 지목한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카톨릭 신도의 90%, 흑인 개신교인의 88%, 백인 주류 개신교도 86%, 그리고 백인 복음주의 교인 75%가 이와 같이 답했다. 이렇게 볼 때, 2020년 우리는 우리가 가장 우려하던 영역의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2021년 미국을 비롯한 많은 곳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상하게 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에 처해야 믿음을

나라를 목상해온 태국의 성도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바가 있지 않을까 궁금해진다.

셋째, 비록 2021년을 지나며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성도들이 마태복음 6:33 말씀을 나누기에 이르기는 했지만 현재 모든 곳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상하고 있지는 못하다. 2021년에도 2020년처럼 계속해서 이사야 41:10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했던 성도들이 있었고(페루, 아르헨티나, 멕시코,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너희

나뉘게서 응답하신 것을 기억해보면 늘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였다. 단 한 번도 양식이 많은 하늘에서 갑자기 푹하고 떨어진 적이 없었다. 항상 어느 누구의 손을 통해 그 필요가 채워졌다. 오늘의 상황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은 어쩌면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뜻할지도 모른다.

이제 2022년을 열며 ‘위드 코로나’를 말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위에서 살펴보듯이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같은 처지에서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돕고 섬겨야 한다. 바울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힘을 모았던 것처럼(고후8-9), 교회가 교회를 돕는 사례가 풍성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선교의 문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직접 선교를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현지의 교회를 도와 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섬길 여력을 갖게 해준다면 펜데믹으로 이동이 어려운 시기에도 선교사역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안해본다-‘위드 코로나’ 시대의 선교는 ‘위드 현지교회’.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이 처한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들을 세우고 이끌 말씀을 미리 주셨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코비드에 상처 입은 서로를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것이다.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

spark4@gordonconwell.edu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롬12:2	잠:5-6	롬:8:28	수:1:9	사41:10	빌4:6	사41:10	마6:33
미국	빌4:8	롬12:2	롬8:28	롬8:28	사41:10	빌4:6	사41:10	마6:33
남아공	렘29:11	렘29:11	렘29:11	렘29:11	사41:10	빌4:6	사41:10	렘29:11
브라질	빌:8	수:1:9	렘29:11	수:1:9	수:1:9	빌4:6	빌4:6	수:1:9
태국	-	-	마6:33	-	마6:33	마6:33	빌4:6	마6:33

(도표) 연도별 유버전(YouVersion) 앱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고 나눈 성경구절. 출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도 유버전 공개 보도자료.

2021년 가장 많이 읽은 성구 “먼저 그의 나라와...”(마6:33) 사41:10, 빌4:6로 준비시키고 2020년 펜데믹엔 사41:10

장 많이 찾고 나누었던 말씀이 된 바 있다는 사실이 예상롭지 않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많은 성도들은 이미 2018년에 이사야 41:10 말씀을 찾고 나누던 가운데 2020년 펜데믹이 터지면서 이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었고, 브라질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성도들은 2019년에 이미 빌립보서 4:6 말씀을 찾고 나누는 경험을 하던 중 펜데믹이 터지며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이라 보여진다.

여기서 관찰되어지는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환란이 닥치기에 앞서 그들을 붙잡고 이끌어줄 말씀을 미리 주신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말씀으로 미리 준비시키신 예는 성경 전체에 담겨 있다.

이사야 41:10 말씀만 해도 그렇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람’이라 부르시며 장차 그들

는 하나님의 역사는 옛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

둘째, 판데믹을 거치며 세계의 많은 성도들이 마태복음 6:33 말씀을 붙잡기에 이르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도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진다는 것은 실로 고무적이지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것보다 “그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함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가르침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한 절 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마6:10-11).

21세기를 사는 미국 크리스천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더 이상 가장 큰 근심거리가 아니라는 연구보고가 있다. 페데믹 전이었던 2017년, 퓨(Pew) 연구센터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크리스천투데이(Christianity Today)는 당시

추스리게 될까.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에 둘 수는 없는 것일까. 바로 이런 이유에서 태국의 교회를 눈여겨보게 된다.

유버전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태국의 성도들은 특이하게도 펜데믹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목상해온 것 같다. 비록 공개된 자료가 간헐적이긴 하지만 태국의 성도들은 특이하게도 지난 수년간 유독 마태복음 6:33 말씀을 많이 찾고 서로 나누어왔던 것을 볼 수 있다(도표 참조). 펜데믹을 맞은 2020년, 그들 역시 빌립보서 4:6에서 힘을 얻기는 하지만 2021년이 되자 그 것처럼 마태복음 6:33 말씀이 다시 그 곳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간 것이다. 태국에 대해 문의한 필자가 가름할 수 있는 바는 아니겠으나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상하기에 이른 지금, 줄곧 ‘하나님의

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하신 예레미야 29:11 말씀에 의지해 2022년을 여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며(남아공,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등),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호수아 1:9 말씀을 자주 목상해왔던 많은 중남미 국가 성도들은(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칠레 등) 2021년에도 그 말씀을 계속 목상해갔다(특히, 브라질과 파나마).

기독교의 중심축이 숫자적으로 이미 지구의 남반구로 옮겨진 현재, 그곳의 성도들은 계속 혹독한 펜데믹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6:33의 후반절의 의미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어떤 방법으로 이뤄질까? 필자의 경우, “일용할 양식”을 구했을 때 하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Dr. LV NV 89136</p>	<p>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규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오후 4:0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영양예배: 배워(목)후 4:00-7:00</p> <p>Tel: (773) 821-1112, estcross@yahoo.com 680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8200 Briarwood Rd., Lansdale, PA 193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p> <p>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성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영): 오후 1:45 금요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목회, 유년, 종교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702) 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as Vegas, NV 89146</p>	<p>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54) 542-0288, Fax: (254) 542-9037 706 Witt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p> <p>Tel: (254) 5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 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 536-6675, www.tacomak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 - 선교적 접근

삶에서 보여지는 관계적 공동체로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코로나는 화려한 완관을 일컫지만 지난 2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현실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어버렸다.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5백4십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 선방하였다고 자랑하는 한국도 사망자 숫자는 5천명이 넘어갔다(2021년 12월 22일 현재).

이 가운데는 한인선교사 36명이 코로나 희생자 명단에 기록되었으며 위독한 선교사들의 긴급후송을 위하여 11번에 달하는 에어앰블란스를 불렀다. 이제는 코로나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2년 동안 교회는 혼돈과 분열의 모습 속에서도 세상의 아픔과 함께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자성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직도 모든 것이 여수선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성숙한 교회는 코로나와 함께 하는 시대에도 더욱 빛날 것이다.

코로나 시대는 세계화의 큰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처럼 빠른 시기에 전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은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시대에는 시간, 거리, 문화적 개념이 모두 세계화되어진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화 물결이 불편하고 불이익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지역화의 시도가 반작용으로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일상을 깨뜨리고 만고 진리처럼 여겨지던 것들이 크게 도전을 받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코로나시대에는 제4차 산업혁명을 조기에 이루어가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었는지 직감하지 못했지만 코로나 팬데

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주소가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권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인식을 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코로나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선교적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창의적 확장성

교회의 모든 분야에서 창의적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모든 것을 만드시오 이름을 짓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의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지역개념의 확장성이 필요하다. 선교는 해외라는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신의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되어야 한다. 교회에 주신 모든 은사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지 말아야 하고 선교적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회의 헌금으로 드러진 지원만이 아닌 성도들이 삶에서 생산해내는 모든 자원이 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해야 한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과 비영리기관들에서 사용되는 엄청난 재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일을 위해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하고 선교적인 방향으로 사용 받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한 관심만큼 교회의 중요한 영적자원을 더욱 개발하도록 해

로 더욱 쉽게 더 넓게 사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는 비대면 방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선교사들에게도 비대면의 기술적인 습득이 필요하고 내용의 개발을 위한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영어교육과 특수기술교육 등을 통한 접근들이 미주 한인교회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다.

선교현지에서는 유사문화권 지도력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직접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사들은 가장 접근이 쉬운 인접한 종족이나 문화권의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주한인교회는 선

야 하고 누구든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는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으며 기존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 또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종족들에게도 적극적인 접근 필요성은 더욱 크다. 그렇기에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여야 하며 더욱 의도적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관계적 공동체

교회는 복음이 삶에서 보여지는 관계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함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하여야 한다. 이럴 때 일수록 교회의 연합이 필요하다. 같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연합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증거가 된다. 국가를 초월하는 교회의 연합은 선교사들의 연합이 필요하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욱 함께 하여야 한다. 선교는 그 누구도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거대한 도전이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공동의 사명이다.

혼돈과 좌절 가운데 빠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소망이심을 알려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때 일수록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에서 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은 이럴 때에 성경적 답안을 제시하여주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다가가서 아픈 자들을 품어주며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삶에서 증거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야 한다.

미주 한인교회는 나그네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흠여진 나그네에게 주신 진정한 선교적 사명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나그네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신 것은 또한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새 시대를 맞이하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는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사60:1-3). 미주한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dr.yongcho@gmail.com

지역개념의 확장성 필요, 인적 물적 지원과 영적자원 개발 유사문화권 지도력 개발, 비대면시대에 의도적 개방성 필요

곳으로 가는 선교를 많이 외쳐왔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깊은 인식은 변치 않고 있다.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온 전 세계의 이주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의 대상자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같이 전쟁과 정치적 격변으로 인하여 수백만명이 흠여지고 있다. 미얀마의 쿠데타는 소수민족들을 난민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 환경적인 이유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복음에 가장 수용적인 사람들이 되어있다. 이들을 찾아가고 품어야 한다.

선교적 자원이 확장되어야 한다. 교회에 주어진 자원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영적 자원이 있다. 선교는 전문가인 선교사만이 하는 일부의 특수작전이 아니다. 선교적 도전은 특별한 훈련을 요구하지만 모든 성도들은 선교적 책임을 맡아 자

야한다. 기도만큼 중요한 일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져 왔다. 언택트 시대에 우리는 가지 못하고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물적 자원을 보내는 것과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교회들과 성도들의 기도체인을 연결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전적인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영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도적 개방성

선교적 전략이 창의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대면과 비대면을 뛰어넘어 선교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국가들과 지역들이 접근 금지되었다. 선교사들은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모든 활동이 쉽게 드러나게 되었다. 반면에 직접 찾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곳을 이제 줌과 온라인의 다양한 방법

교사들의 재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우면 콘텐츠 개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대면이 익숙해진 시대에는 더욱 의도적인 개방성이 필요하다. 교회는 찾아오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셨던 것처럼, 교회가 찾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혼돈과 좌절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비대면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더욱 큰 심리적 부담과 아픔 가운데 빠져들고 있다. 이들을 찾아가는 교회의 의도적인 행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교회가 움츠러 들어서는 세상에 바라볼 곳이 없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소망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찾아올 수 있도록 해

께 모여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공동체였다. 이 공동체는 초기 팬데믹 기간 동안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큰 역할을 감당하였고, 팬데믹을 지난 교회는 로마제국을 변화시켰다.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도 동일한 역할이 요구되어진다. 초대교회 때와는 달리 정부와 비영리기구들의 영향이 커진 상황이지만 교회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서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 받으며 사랑 하는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위로를 받고, 진정한 소망의 길을 찾으며 자신들의 은사들을 마음껏 사용하며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용서받고 변화받은 죄인들이 모여 감격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단일 지역교회나 단체가 이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동부(NY, NJ) 교회</h2>		<h3>뉴욕갯세마네교회</h3> <p>담임목사: 이지웅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영국교회: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www.nyget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3>뉴욕목양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3>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5-2584, www.i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3>뉴욕새벽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3>뉴욕새사람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2-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3>뉴욕양무리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p>Tel. (718)662-6611 147-01 38th Ave., Flushing, NY 11354</p>	<h3>뉴욕센트럴교회</h3>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3>뉴욕주찬양교회</h3> <p>담임목사: 김희복 주일예배: 오후 1:30 다중문화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구역모임</p> <p>Tel. (646)584-5780, kimheobok7@gmail.com 76-11 Woodside Ave., Elmhurst, NY 11373</p>	<h3>뉴저지성도교회</h3>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 오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3>리빙스톤교회</h3>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창간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예배: 오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모임: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2nd Ave., Bayside, NY 11361</p>		
<h3>베이사이드 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식 평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친교인문학사예배: 매주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82 21st St., Bayside, NY 11361</p>	<h3>빛과소금교회</h3>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45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창간예배 오후 3:15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3>사랑의동산교회</h3> <p>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학교: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p> <p>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p>	<h3>어린양개척교회</h3> <p>담임목사: 유승래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p> <p>Tel. (845)848-2013</p>	<h3>온누리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7:0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p> <p>Tel. (845) 359-1458, http://onnuri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p>	<h3>퀸즈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h3>아르헨티나 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최광원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R,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3>칠레 한인연합교회</h3>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3>토론토 가든교회</h3>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3>하와이 행복교회</h3>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3>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3>멕시코 현지교회</h3> <p>선교사: 임함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파누스 신학대학 교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교육적 접근

그리스도인 정체성 강화하는 신앙교육이 백신

이상명 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육계에는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광폭한 변화다. 교회학교의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껏 운영해오던 교육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달라져야 할까?

기존에는 교사들이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교사의 이러한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편된 사회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체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더욱 더 요정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조력자로서 학생들을 지원해주면서 그들 각자가 지니고 있는 특이나 장점을 발굴해서 그것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학교의 경우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하여 다윈화 시대의 다양한 정보와 자원들을 선별하는 능력을 학생들로 하여금 함양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성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교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전망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총체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위기상황이라는 나락으로 점점 더 빠져들 것임 자명하다.

코로나19가 물리적 공간에서는 언택트로, 가상공간에서는 초연결로 우리 사회를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팬데믹은 실제 생활환경을 디지털 세계로 전환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일으키고 있다. 팬데믹은 우리 생활 곳곳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소위 '이동시대'에서 '접속시대'로의 전환은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공간이 무한한 디지털 가상세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초래한 언택트는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메가트렌드(megatrend)다. 메가트렌드란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조류'를 뜻하는데 어떤 현상이 단순히 한 영역의 트렌드에 그치지 않고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시적 변화를 가리키는 용어다. 사람들의 습관과 선택의 변화가 만드는 마이크로트렌드(microtrend)가 10년 이상 지속될 경우 이를 메가트렌드라 한다. 위드 코로나 상황은 지구촌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메가트렌드를 가속화하고 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있어 큰

이 대세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찾아온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성장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견인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원격교육은 필수가 될 것임 자명하다.

위드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사회의 전반적 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메가트렌드라 할 수 있다. 설령 코로나바이러스가 퇴치된다 하더라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여 변화된 사회 인프라는 물론 우리의 라이프스타일과 의식구조를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되돌리기가 불가능해 가깝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분명 대재앙과 같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규제나 관행 때문에 변

이러한 비대면 비접촉 사회로 급속히 재편되는 상황에 따라 교육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기존의 대면중심교육을 탈피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대면 원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하이브리드 수업 모델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심하게 재고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교육 환경으로 신속히 재편해야 한다.

나아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다음 세대가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지 않기 위한 '인택트(intact)' 신앙교육도 심화시켜야 한다. '인택트' 신앙교육이란 '온전한', '손상되지 않은'이란 의미로 그리스도인 됨이라는 정체성 보존과 관련한다. 교회는 언택트와 인택트의 듀얼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위드 코

미래 학자들은 디지털 문명의 특성은 새로운 소비문명의 급속한 확장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학습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소비자가 남기는 데이터를 통해 과거를 읽어내고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새로운 문명을 학습하는 연습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다음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현 세대는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 교육과 디지털 콘텐츠(contents)의 이해와 활용에 어느 정도 익숙해야 한다. 아날로그세대와 디지털세대 사이의 간격을 메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도 필요하다. 교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인해 재편된 사회인프라와 의식구조에 맞춰 새로운

교회는 이제껏 초자연적 영역에만 머문 채 자연현상을 다루는 과학을 등한시하거나 경원시하였다. 이런 교회의 입장은 세상과의 소통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합리적 통찰이 결여된 맹목적 신앙을 자라게 했다. 이러한 사이 코로나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역습 앞에 교회는 이전 어떤 시기보다 더 큰 위기의 격랑을 맞닥뜨렸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사태는 1차로부터 3차 산업혁명에 이르는 200년의 축적된 발전을 발판 삼아 이내 쓰나미(tsunami)처럼 교회를 덮칠 기세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가져올 도전과 위기는 개신교회로 하여금 근본적 개혁을 요청한다. 개혁 없이는 미래도 없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속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은 신적 자리마저 탈취하려고 한다. 그러나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과 영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 둘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와 함께 더욱 쟁점이 될 수 있는 생명과 영성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영생과 영성은 교회의 영역이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다. 과학기술혁명이 심화되면 될수록 고갈되는 영성의 문제는 결국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교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의 여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교회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회는 내부개혁과 함께 다음세대 신앙교육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정체성을 강화하고 심화하는 신앙교육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탑재해야만 하는 백신이라 할 수 있다.

sangmeynglee@msn.com

언택트와 인택트의 듀얼 교육방식 도입 교회는 더욱 쟁점 될 생명과 영성 채워줄 수 있어야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는 교육분야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하기 전 모든 교육은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면교육으로 진행되어왔다. 지난 2년 동안 지속된 위드 코로나 시대 온라인 수업은 급속히 부상하여 교육의 뉴노멀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수업모델 모습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본교 교수 38명을 대상으로 작년(2020년) 6월에 실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66.7%가 미래 수업 모델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의 하이브리드(hybrid)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교육은 아날로그 방식이었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비대면 디지털 방식

가 어려워졌던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디지털 전환은 4차 산업혁명과 이음동의어로 디지털 기술이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정치 경제 및 사회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언택트 산업 육성과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습하기 전 우리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일하고 배우고 쇼핑하고 예배드리고 여가활동하면서 살아오고 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시대는 사람 사이의 다양한 교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언택트(untact)' 사회, 즉 비대면 비접촉 사회를 앞당긴다.

로나 시대를 적절히 대비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하이브리드(hybrid) 수업 모델에 기반하여 진행될 것이다.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온 후 아이폰은 세상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 혁명적 디바이스(device)로서 기능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손 안의 개인 컴퓨터라 할 수 있는 아이폰과 스마트폰은 학습방식과 지식 습득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문자에서 영상 기반으로 학습 방식을 전환시켰다.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비대면, 비접촉 사회는 아이폰, 스마트폰과 같은 문명의 이기(利器)를 통해 개인과 개인을, 개인과 사회를 더욱 더 촘촘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교육의 방법과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구축하는 데에 더욱 힘써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5-10년 정도 앞당긴 코로나사태로 인해 교회는 과거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하였다. 무엇보다 신앙교육과 과학기술교육 사이의 갭은 더욱 더 벌어졌다. 기술 없이 과학이 한결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지만 그렇다고 기술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지는 않는다. 과학기술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비전이 필요하다. 교회는 과학기술이 제공하지 못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신앙과 과학을 서로 갈등하는 관계(갈등모델)로, 각각 별개영역을 다루는 독립된 관계(독립모델)로, 상호 대화하고 협력하는 관계(대화모델)로 볼 수 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2년 봄학기 온라인 수업일정

1월10일 - 3월6일
DI8310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기독교 선교역사)
*** 3/7/2022-3/13/2022 (봄방학)

3월14일 - 5월8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타문화 지도력개발)

2022년 여름학기 수업일정

5월23일 - 7월17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 D.Min in Ics.
PM 8610 Pastoral Counseling (목회상담)
for D.Min in pastoral

5월23일 - 7월17일
DI8150 Contextualization (상황화)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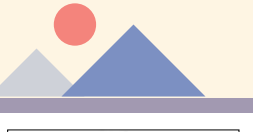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카톡 ID: KoreanGTS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 - 차세대 접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최호섭 목사

(뉴욕청소년센터 대표, 뉴욕영락교회 담임)

할렐루야!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꼭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그로 인해 모두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이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점에서, 앞으로 또 어떤 변화들이 더 찾아 올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물음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혼돈스럽기만 합니다.

30년 전 한인 이민교회에 염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Silent Exodus” “고요한 탈출”이라는 우리의 2세대들이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염려하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염려는 했지만 이 현상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이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통하여 Silent Exodus는 더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주변 한인교회 목사님들로부터 중고등부 혹은 영어목회 사역자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소개해줄 사역자들이 없습니다. 광고를 내도 문의를 하는 사역자들이 없습니다. 미국 주류 신학교에도, 한인 교단신학교에도 중고등부와 청년 등 2세 사역을 감당할만한 신학생들이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신학생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신학교들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한인교회의 물리적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이 신학교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다시 교회의 어려움이 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팬데믹 사태로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음으로 자녀들도 함께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미약하던 교회학교가 코로나사태로 아동부가 더욱더 모이지 못하고, 중고등부가 더욱더 모이지 못하고, 청년들이 더욱더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모이기를 꾀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다는 이야기로 핑계를 계속 삼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와 믿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교회가 뚫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오늘 이러한 당면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들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연합사역

먼저 우리는 이제 개 교회 중심의 2세 사역이 아닌 교회들이 이제는 서로 연합해서 우리의 2세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교회적으로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사역자들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2022년에도 모든 교회에게 도움이 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연합사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플랫폼 사역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같이 우리의 2세 사역에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음을 믿고 오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다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팬데믹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팬데믹을 핑계하고 사역을 멈추거나 지체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할 기

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몰려갔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미국의 주일학교는 부흥하고 있었고 교회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훌륭한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새로운 사역자들을 세우고 발굴하는 일에 (AYC를 비롯)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인 2세를 넘어서 다른 2세들까지도 하나로 아우르는 사역이 필요합니

만 이제는 눈을 돌려 이 땅 안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아직도 한인 이민사회 가운데 절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소위 ‘가나안 성도’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다시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와 열방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훈련하고 준비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뉴욕청소년센터(AYC)는 청소년 사역은 물론 부모님들을 위한 사역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지역 교회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연합하여 다음 세대교육이라는 놓칠 수 없는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신명기 6장 4-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을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2세 사역의 어려움과 자녀를 잃어버린 이유 또한 같은 것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영적으로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개 교회가 또한 모든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이 사명을 단기적인 시각을 넘어서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부지런히 행할 때에 다시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힐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aulnsilas@yahoo.com

①지역교회 연합사업 ②온라인 플랫폼 활용 ③사역자 발굴 앞장 한인교회 영적 회복 부흥이 2세 부흥의 견인차... 부모사역도 함께

는 자들에게는 항상 어려움과 도전이 존재하였습니다. 예로 1900년도 태어난 사람은 14살이 되던 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9백만명 이상의 군인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8살이 되던 해에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명 이상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939년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총 사상자가 5천만명에서 7천만명에 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가 유대인 어린이 100만, 그리고 여성 200만명, 남자 300만명, 총 600만명을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있었고, 1929년에는 경제대공황으로 세상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교회와 믿는 자들은 이겨냈고, 믿음을 지켜냈고, 변화했고 여기까지 올 수

구하고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여러 면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이 여름성경학교나 한글학교나 수련회나 부흥회와 같은 집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몇몇 큰 교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자녀들을 참여시키는 것에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연합사역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내 교회 네 교회’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 보단 둘이 낱고 둘보단 셋이 낱습니다. 함께 힘을 합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뉴욕교협산하 뉴욕청소년센터(Asian Youth Center)는 뉴욕일원 교회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며 자녀교육이라는 짐을 함께 지고

회를 찾아야 합니다.

뉴욕청소년센터(AYC)는 팬데믹으로 인해 자녀들을 대면으로 만날 기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녀들을 On Line을 통해 만날 기회가 더 많아졌음을 감사하며, On Line 플랫폼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지난해 온라인 사역을 시작했고, 그 사역을 2022년에는 더 강화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의 방안까지 깊숙이 들어가 그들과 만나고 공감하고 교감하고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컨텐츠로 변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자들

앞에서 나는 1900년에서 1950년까지 세상은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수많

다. 한인을 넘어서 중국 2세 그리고 필리핀 2세 등 모든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다문화 다민족 사역에 더 열린 마음과 목표를 두고 새로운 부흥의 동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한인디아스포라와 한인교회

하나님께서 한인들을 온 세계 가운데 흠으시고 심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으시기 위해서 흠으신 것입니다(Scattered to gather). 결국 한인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이 우리 2세들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축되고 어려움 가운데 놓인 한인교회들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신규이민이 많이 중단되었지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뉴욕목사회 성탄축하예배 및 제50회기 취임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 성탄축하예배 및 제50회기 취임식

뉴욕목사회 성탄축하예배 및 제50회기 이취임식이 12월 21일 오후 4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목사)에서 열렸다. 김명옥 목사는 “신의, 사명 다 무너졌지만 이제라도 우리 본연의 사명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끼리라도 믿고 도와야 한다”며 “예수처럼 낮아져서 섬기며 혼돈 속에서 빛을 발하며 향기를 내는 목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취임인사를 했다. 감사보고도 받지 않은 채 강행해 ‘불법총회’라는 오명을 쓰고 진행된 임원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김명옥 목사(뉴욕

에노교회)와 부회장 김홍석 목사(뉴욕늘기쁜교회), 임원들이 참석한 이날 이취임식에는 직전회장 김진화 목사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30명 정도만 참석했다. 김명옥 목사는 “첫 임신행위 원회를 개최할 때 모든 것을 클리어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49회기 회계감사가 이날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으며 직전 회계 임태현 목사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클리어’가 가능할지 우려된다. 이날 예배 설교는 김남수 목사(프라이미스교회 원로)가 “기억

하옵소서”(느1:8,9)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김남수 목사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쓰실 리더십을 배우라”며 “시끄러움의 핵심이 돈으로 알고 있는데, 40년 목회기간 동안 누구든지 하나님의 돈에 손을 대면 현행법으로 구속시키겠다고 공포했다”고 말하고 “선한 설득으로 교계를 살리는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부 이취임식은 총무 한준희 목사 사회로 축사 방직각 목사, 권면 김용길 신부, 격려사 윤세웅 목사, 광고 현영갑 목사, 폐회/만찬기도 안재현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임원진만 발표했으며 실행위원은 발표하지 않았다.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명옥 △부회장 김홍석 △총무 한준희 △서기 현영갑 △사무기 김재호 △회계장관호 △수석협동총무 박희근 (이상 목사).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 제 12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신임회장 황규복 장로

제 12회 정기총회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 제 12회 정기총회가 1월 21일 오후 5시 산수감산2 식당에서 열려 신임회장에 황규복 장로를 선출했다. 감사는 김재관 장로, 신승룡 장로를 선임했다. 이날 임원선거는 임형빈 장로가 황규복 장로를 추천했으며 박수호 추대했다. 나머지 임원들은 직전 회장 송윤섭 장로와 신임회장이 논의해 발표하기로 했다.

송윤섭 장로는 “팬데믹 2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해왔는데 부족했지만 오여 기도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며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시 회원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신임회장 황규복 장로(풍아 일랜드성결교회)는 “사람으로 뽑아주신 것에 감사한다”며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다. 회원 배가와 다민족성교대회의 질적 향상 발전 등 기대에 부응하는 회장

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황 회장은 “조직의 정통성이 중요하다”며 “새 회기 비전으로 장로학교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장로들의 모범답안이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10회기, 11회기는 팬데믹으로 행사들이 축소됐으며 10회기에는 신년감사예배 및 이취임식, 11회기에는 다민족성교대회를 가장 큰 사업으로 보고했으며 10회기에 73차 목요기도회, 11회기에 74, 75차, 76차 목요기도회를 열었다. 11회기 재정은 총수입 38,251.84달러, 총지출 32,116.16달러, 잔액 6,135.68달러로 보고했다. 이날 다민족대회에서 모금된 후원금은 전달했다. 후원금은 스프라미스 4/14 선교 △뉴욕교육협정소년센터 △코코야엔센터 △더나눔하우스 △사람의집 △뉴욕농아인교회 등 6개 단체에 총 5,500달러를 전달했다. (유원정 기자)



지역교회부흥선교회 주관한 사모 위로의 시간 및 성탄감사예배에서

지역교회부흥선교회, 은퇴 사모 위로의 시간

지역교회부흥선교회가 주관한 사모 위로의 시간 및 성탄감사예배가 지난 22일 오전 11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려 출사모 및 은퇴사모들에게 오찬과 선물을 증정했다.

회장 허윤준 목사는 “뉴욕 교회를 평생 섬기셨던 어르신들 때문에 뉴욕 교회가 존재한다”며 “늘 섬기신 노고에 감사드리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인사했다. 1부 예배는 허윤준 목사 인도로 이용걸 목사(디모데목회자

훈련원장)가 “임마누엘의 은혜”(사8:5-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헌금특송(G to G) 후 기도 이종태 목사, 축하의 말씀 김희복 뉴욕교회회장, 감사의 말씀 김종원 뉴욕한인원로목사회장, 축도 소외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성탄축하찬양은 G to G(필라영생장로교회),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단장 손옥아 권사, 지휘 이진아 목사), 피아노 중주(전은애 전애실 사모), 찬양(테니 심용석 반주 오소영), 색소폰 오카나리 앙상블(정바울 목사, 김사라 목사, 송금희 전도사), 감사기도 한재홍 목사, 합심기도 및 식사기도 이만호 목사(뉴욕 성신클럽 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LA사랑의교회 설립15주년 세례식 성탄축하예배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설립15주년 제18차 세례식과 함께하는 성탄축하예배를 25일 오전 10시에 가졌다. 이 옥희 전도사 사회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초석일 장로가 기도했으며 임세권 목사가 ‘Christmas: Love is Born, Hope is here(눅2: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임세권 목사는 “2021년 한해를 뒤돌아봤을 때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닌 보여주시며 2천년전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랑으로 부족한 우리를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시는 것”이라 말하고 “성탄의 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는 자들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섭 목사 집례로 세례 및 입교식을 가졌는데 이날 입교를 하는 조예원 자매와 유아세례를 받은 최다은 어린이의 아버지 최주환

집사가 간증했으며 4명이 세례, 21명이 입교, 2명이 유아세례를 받았다. 이어 교육부가 준비한 성탄축하 바디워시를 했으며 설립 15주년과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생일케익 절단식이 있었다. 이날 예배는 김기섭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LA사랑의교회 김기섭 담임목사가 세례받자와 입교자, 유아세례받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왼편은 성탄 및 교회탄생 15주년 기념 생일케익을 자르고 있는 모습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구별하시다(출8:22-24)찬 204장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만이 참 신이다!’라는 사실 선포입니다. 10가지 재앙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자율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에 사용된 피조물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

람의 전형인 바로는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발휘해 말씀에 ‘자율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10재앙 중 파리, 가축의 죽음, 우박, 흑암 재앙은 히브리사람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구별 받은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자들로서 구별된(거룩한) 삶을 삽시다.

화 유월의 은혜(출12:21-28)찬265장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임합니다. 유월절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으로서 화목제물(롬3:25)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요6:48-56)”라고 말씀하셨고, 잡히시던 밤에도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시며 “내 몸과 내 피(눅22:19-20)”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라(요 6:47)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총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음’을 통해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 ‘함께’ 지키는 유월절(출12:43-51)찬500장

유월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과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경험하는 유월절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사는 이방인과 종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 할례 받은 자들은 ‘함께’ 한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습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다.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됐다는 고백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혈연 지어진 하나님나라의 가족이 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을 불신자들에게 알리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야 합니다(롬3:21:22).

목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출13:1-16)찬634장

출애굽 한 이스라엘백성들의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난 처음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은 ‘모든 것’의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새벽기도를 통해 그날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첫날을 드리는 주일예배를 통해 그 한 주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심일조를 드릴 때 ‘열 개 중에서 하나’라는 숫자의 의미가 아닌 ‘수입의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담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소유’로 받으시고 책임져주십니다.

금 임마누엘의 증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출13:17-22)찬301장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함께 하시겠다(임마누엘)’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마누엘하십니다. 그것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

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는 것은 결코 ‘동행’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출40:36-37).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토 홍해 앞에 세우시다(출14:21-29)찬384장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능함을 폭로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 방법은 ‘홍해를 갈라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와 같은 절박한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그곳은 우리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폭로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KAFHI, 아프리카 난민긴급구호 모금음악회

국제기아대책 한인본부(KAFHI)는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아 아프리카 난민긴급구호를 위한 평화음악회를 2022년 1월 8일(토) 오후 7시 LA 만나교회(담임 남강식 목사)에서 개최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고통 받는 세계 빈곤국가들은 방역도 백신도 소외된 상태다. KAFHI가 지원하는 동아프리카 4개국인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부룬디가 대표적이다. 국제기아대책(Food for the Hungry)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Stay at Field with the vulnerable people”라는 지침 아래 빈곤하고 취약한 필드에서 지속적으로 긴급구호와 구호개발사역을 진행해왔다. 이를 위한 협력과 후원자를 구하기 위해 사무총장 정승호 목사는 북미주를 팬데믹 기간 동안 자동차로 16회 대륙횡단을 마다하지 않았다. 정 사무총장은 이 지역 국제기아대책의 구호개발활동을 보고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필드에 더 많은 필요가 요청된다며,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

과 나눔이 참 평화를 가져올 희망의 씨앗이 된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 음악회는 KMC 미주자치연회(임승호 감독)가 후원해 유명 음대 피바디 출신들을 중심으로 평화챔버오케스트라를 결성하고 첫 음악회로 이번 아프리카 난민구호 후원연주회를 갖는다. 음악회 입장은 무료이며 당일 후원금은 전부 국제기아대책을 통해 아프리카 난민구호에 보내진다. ▲후원 및 참석 문의: 정승호 사무총장(703)473-4696, shchung@fh.org. (기사제공: 국제기아대책 한인본부)

ITS, 릴리재단에서 100만불 지원금 승인

ITS(총장 제임스 리 박사)는 미국의 이민자 및 소수민족교회 목회자들을 준비시키는 능력을 강화하기위해 인디애나 폴리스에 위치한 릴리재단으로부터 2차 그랜트를 승인받았다. ITS는 Lilly Endowment Inc.(릴리기금단체)로부터 미래계획을 위한 길을 통해 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제임스 리 총

장은 “릴리재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100만 달러 기금은 ITS가 지도력, 재정 및 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신학교의 모든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에서 나오는 활발한 계획을 수행하는데 준비되도록 한다”며 “본교는 유망한 이민자 및 민족 지도자를 학위프로그램으로 모집, 인증 프로그램 개발, MDiv에서 실용적인 신학의 확대, 이중직업 인턴십 개시, 그리고 우리의 재정모델강화를 더 견고하게 함으로써 이를 수행해나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교회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더 많은 목회자들을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기도와 후원을 당부했다. 기금단체의 종교담당 부의장인 크리스토퍼 코블 씨는 “신학교는 오랫동안 교회의 목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오늘날 이 학교들은 급변하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 놓여있다. Pathways Initiative를 통해 신학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인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신년축하광고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용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917)968-1024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2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Tel. (917)862-0523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양곡교회
연합당회장: 지용수
담임목사 :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213)380-9377
Tel.(213)380-9079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중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 장요셉

1864 Precinct Line Rd,
Hurst, TX 76054

Tel. (817)427-1020
Fax.(817)427-0110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4562 211th St,
Bayside, NY 11361

(718) 229-0858
www.nybaysidechurch.com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ghwachurch.org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 김순관목사

Tel.(808)542-2922
www.ikccah.org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Cell.(213)745-9191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el.(323)-737-3009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 백운영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el. (714)646-9259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213)749-6700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310)325-402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3416 W. 1st St,
LA., CA 90004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



FOOD FOR THE HUNGRY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

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2002 - 2022)

Peace Chamber Orchestra
Presents
NEW YEAR BENEFIT CONCERT
For
Africa Refugee Relief

아프리카 난민구호

신년평화음악회



Saturday, January 8, 2022

7:00 P.M.

LA 만나 교회 본당

(456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주최 KAFHI(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

후원 KMC 미주자치연회